

IBS 토종 기술로 해외시장 뚫는다



는 국내 기
업의 비즈
니스 환경
이 우호적
이다. 또한
가격경쟁력
도 외국기

지능형빌딩시스템(IBS)은 빌딩의 설비·조명·전력의 자동 제어를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방법·방재 등 미래형 건물통합 관리의 핵심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에너지 저감 등 경비 절감과 탄소배출 억제 등 친환경 건축 트렌드에 대응하는 최적 수단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IBS전문기업 이에스콘트롤스(주)(대표 김영준, 사진)를 찾아가 보았다.

김영준 대표는 “예전에는 하니웰, 지멘스 등의 외국기업이 IBS등 국내 자동제어시장의 60~70% 이상을 점유해 왔다. 그런데 국내 경기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건설 시장이 위축되고, 더구나 정부가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IBS업계에서는 외국기업을 대

신해 국내 기술 중소기업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외산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동소이한 기술력과 품질을 보이면서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선호 경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이에스콘트롤스(주)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20% 이상의 R&D투자와 국책과제 수행을 통

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오며 경쟁력을 높인 결과, 매년 30%의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김 대표는 “2006년 회사설립 초창기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R&D투자는 빼놓지 않았다.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투자는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선행투자자로서 타사와 차별화를 이뤄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최근 들어

결실을 맺고 있다. 금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수주로 3년치 물량을 다 확보했다. 신도시, 세종시 청사부터 경찰대학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에스콘트롤스(주)는 빌딩의 설비, 조명, 방법, 산업플랜트의 크린룸 및 생산설비의 자동화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인재와 축적된 기

술력을 기반으로 개발, 생산, 설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토털솔루션 구축으로 20~30%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더불어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업무효율 향상 및 건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 ‘ES-2000시스템’은 개방형 TCP/IT, BACnet/IP 및 MODBUS(RS485)

통신방식 프로토콜을 채용한 IBS로 신뢰성, 독립성, 조작용이성, 제어성, 호환성 등이 우수해 2010년도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업그레이드를 통해 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등에서 성능효과를 더욱 향상해가고 있다.

특히 2선식 직류전력선을 통

한 통신으로 외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사비의 획기적 절감을 이뤄낸 제품이다.

이에스콘트롤스(주)는 이러한 기술력과 LG트윈타워, 삼성전자 사옥 등 수십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시도, 작년부턴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스타트를 끊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동남아 시장에서

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홀로 나서기는 어렵지만, 코트라에서 현지 가이드 지원 등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는 KOTRA, KOICA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다. 앞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콘트롤스(주)가 성장 궤도에 안착하면서 김 대표는 3년후 은퇴를 꿈꾸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도록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김 대표는 “저는 자식이나 친척이 아닌 직원들한테 CEO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 제가 창업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다. 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려 한다. 또한 직원들도 이에 걸맞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30% 이상 성장의 버팀목